

##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김 아 영

서대구대동병원 임상심리과  
임상심리사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564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 정서표현양가성, 경험회피, 우울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성향과 경험회피와의 관계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분 매개하였지만, 정서표현양가성은 이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과 동반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경험 수용의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성향, 우울, 정서표현양가성, 경험회피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용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Tel: 053-850-3207 / E-mail: ymbaik@cu.ac.kr

성격은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방식에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격이 역기능적으로 나타나 개인의 삶과 관계 속에서 주관적 고통을 유발시킬 때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진단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장애는 청소년 후기에 발현되어 자기개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욕구와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성격장애 중 임상장면에서 빈번히 진단되는 장애가 경계선 성격장애로, 이들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2%이고, 정신과 외래환자의 경우 10%, 입원환자는 20%로 추정될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극적인 행동과 정서적 특징을 나타내는 B군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대인관계, 자기상 및 정서상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더불어 만성적인 공허감과 충동적이고 자기손상적인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Henry, Mitropoulou, New, Koenigsberg, Silverman, & Siever, 2001; Linehan, 1993, 2007). 또 이들은 경계선(borderline)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정상의 심각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경증과 정신증의 사이에서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증상을 두루 나타내며, 정서나 행동, 대인관계 전반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한다(권석만, 2013). 이에,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물질중독 등 다양한 정신장애와의 동반이환이 흔하다(Zanarini et al., 1998).

경계선 성격장애는 슬픔, 수치심, 두려움, 공허감, 외로움, 분노, 적개심 등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상태를 수시로 경험하기에 기분장애와 공병률이 높다(Gunderson et al., 2002; Zimmerman & Mattia, 1999). 미국의 대형 정신

과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의 20%~40%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동반하며(Underwood, Froming, & Moore, 1980), 주요우울장애의 경우 공병률이 약 70%로 추정될 만큼 높은 수준이다(Mc Manus, Lerner, Robbins, & Barbour, 1984). 더욱이, 이들 간의 공병은 장애의 경과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Gunderson 등(2008)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41%는 추후 주요우울장애가 함께 동반되었으며, 주요우울장애를 동반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재발률이 더욱 높았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의 악화나 완화가 주요우울장애 경과에 유의한 예측인자가 되며, 경계선 성격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주요우울장애의 관해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민선, 최현정, 2020).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임혜진, 곽소영, 신동균, 1997; 장미, 이영호, 2008; Gunderson, 1996; Russ, Shearin, Clarkin, Harrison, & Hull, 1993), 최근 성격장애가 정상적 성격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견해(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양은주, 류인균, 2000; 허연주, 이민규, 2015)와 더불어 성격성향자에서부터 장애군에 이르기까지 증상이나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Gunderson & Phillips, 1991; Oquendo, Malone, & Mann, 1997; Soloff, Lynch, & Kelly, 2002; Staebler, Gebhard, Barnett, & Renneberg, 2009). 국내 연구 중 박진미(2006)는 경계선 증후군 수준 정도의 일반인 역시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홍상황과 김영환(1998)은 단지 경계선적 성격특성을 가진 대학생 집단에서도 문제 수준의 우울 증상

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여환홍과 백용매(2010)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자살시도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며, 경계선 성격장애의 우울이 '자살생각'의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우울을 통제할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는 사실은(김현순, 김병석, 2007; 양은주, 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우울이 자살생각이나 시도 및 다른 행동적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는 우울장애와 공병율이 높고 비임상집단에서도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증상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경계선적 성격성향과 우울증상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함께 발현되는지, 또는 이들 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인해 우울증상이 증폭 또는 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간의 인과적 관계와 이 두 변인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개변인들을 함께 밝히기 위하여 비임상집단을 통해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우울장애 간의 공병율이 높다는 사실과 경계선 성격장애들이 만성적인 공허감과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사실에서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김민선, 최현정, 2020; Gunderson & Phillips, 1991; Zimmerman & Mattia, 1999). 이는 Herman와 Harvey(1997)가 대부분의 경계선 성

격장애가 학대나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양육자에 대한 일관된 내적표상을 형성하지 못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자기상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만성적으로 우울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도 경계선 성격특성과 우울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특성과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제할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양은주, 류인균, 2000)는 사실은 우울의 중요성과 함께 경계선 성격특성과 우울, 경계선 성격특성과 자살 간의 관계에 또 다른 변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많은 연구에서도 정서표현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이나 기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아 왔다(Levenson, Carstensen, & Gottman, 1994). 정서표현이 많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이나 지지를 받기에 용이한데 반해(Emmons & Colby, 1995; King & Emmons, 1990; Richetin, Preti, Costantini, & Panfilis, 2017), 이를 억압하는 것은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은 정서적 경험과 표현이 자율신경계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근거한다(Buck, 1988). 즉, 정서표현을 억누르는 것은 생리적 활동을 요구하며, 적극적이고 습관적인 억제체는 만성적인 자율신경계 각성을 초래하여 심리적,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Friedman &

BoothKewley, 1987; Goldstein, Edelberg, Meier, & Davis, 1988).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서표현수준이 낮더라도 심리적 불편감을 나타내지 않거나, 정서표현수준이 높더라도 이에 민감하여 더욱 강한 정서반응을 초래한다는 주장(Bell & Byrne, 1978; Kennedy-Moore & Watson, 2001)은 정서표현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일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Pennebaker(1985)는 정서의 표현이나 억압 자체보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active inhibition)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고,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양이 적더라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과 긴장되고 억압되어 표현이 적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은 정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과 정서억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최혜연, 민경환, 2007).

정서표현양가성이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최혜연, 민경환, 2007). 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표현욕구와 억제에 대한 욕구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Emmons & Kaiser, 1996).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하는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공감이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며, 친밀한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한다(Emmons & Colby, 1995).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에 반하는 적극적인 억제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과각성은 초조성 우울을 비롯한 강박증, 반추사고 등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

경환, 1997;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Wenzlaff & Bates, 1998), 만성적으로 지속될 시 면역 체계의 기능저하, 암이나 심장질환 등 신체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Pennebaker, 198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문제와 결부시키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보이는 감정폭발은 정서를 상황에 맞게 표현하거나 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 극단적인 감정분출이나 폭발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성향자들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통합실패로 부정적인 자기상을 지니게 되고, 그로 인한 인지와 정서표현의 취약성이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켜 극단적 충동적 정서폭발이나 과도한 억제와 같은 정서표현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Conway, Hammen, & Brennan, 2012).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은 타고난 정서적 취약성과 비수인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더 쉽게 각성되는 반면 이에 대한 감내력이 부족하여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Henry et al., 2001). 더욱이, 이들은 내적 경험에 대해 수용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처벌받는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내면적으로 우울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은경, 이정숙, 2009; Goldsmith & Freyd, 2005).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적 성격성향이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유발하고 이러한 정서표현의 양가적 갈등이 우울을 심

화시켜 극단적인 행동이나 감정분출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성향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경계선 성격성향자는 학대나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양육자에 대해 일관된 내적표상을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기상을 내면화하게 되고(Fairbairn, 1949; Herman & Harvey, 1997), 그로 인해 자기 및 대인표상에서도 통합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정체감혼란을 경험하게 된다(Kernberg, 1985). 이러한 통합실패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의존이나 유기 불안을 경험(Kim & Cicchetti, 2006)하게 만들며,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타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공유하는데 갈등과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김은정, 김진숙, 2010). 이러한 갈등과 두려움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와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파생시킨다(이영식, 2015; 이채리, 2012; 전선영, 김은정, 2013; Emmons & Colby, 1995). 김우석(2004)은 정서적 갈등이 높은 사람은 미성숙하고 억제적이며, 갈등을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은 정서표현양가성이 성인기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자체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회피는 개인이 원치 않는 신체감각과 정서, 사고, 기억 등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말하는데(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최근 연구에서는 경험회피가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 부적응행동을 악화 및 지속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Hayes, 2004).

일반적으로 경험회피는 당면한 불편감을 잠시 회피하게 만드는 부적 강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개인의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투입하게 만들고, 때로는 피하고자 했던 불쾌한 인지, 감정, 감각이 더욱 민감화되거나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만들기도 한다(이채리, 2012; Hayes, 2004). 더 나아가 경험회피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성숙한 통찰이나 몰입을 방해하여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무미 건조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험회피가 지속될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지연, 황현숙, 장진이, 2012;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Kashdan & Rottenberg, 2010). 실제로 Bjornsson 등(2010)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험적 회피가 8~12주 후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추상엽과 임성문(2010)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가 우울의 약 58%를 설명할 만큼 강력한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회피가 우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흔히 회피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부정적인 정

서경험이 많은데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저조하여 정서를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hapman, Dixon-Gordon, & Walters, 2011; Gratz, Rosenthal, Tull, Lejuez, & Gunderson, 2006). 이들이 나타내는 자해나 자살 시도, 물질남용과 같은 충동적이고 자기손상적인 행위 역시 정서회피대처의 일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Kruedelbach, Mc Cormick, Schulz, & Grueneich, 1993).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자살시도를 한 후 우울이나 불안감, 무망감 등 부정적 정서가 일시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Strosahl, Chiles, & Linehan, 1992)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기 보다는 억제하거나(Linehan, 1993) 다른 방식인 회피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어 극단적인 방식의 행동과 감정표현으로 나타내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홍수연, 이승연,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나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은 이들이 정서표현 상의 양가적 갈등을 감내하지 못한 채 이를 회피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우울감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성향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우울문제는 정서표현양가성이나 경험회피와 같은 변인들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를 각각 매개하여, 또는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를 이중 매개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연구모형에서는 경계선 성격성향이 경험회피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우울로 이어지는 이중 매개모형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그림 1).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정서적, 인지적,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주 정서표현의 갈등을 경험하고(배민정, 정윤경, 2015; Herman & Harvey, 1997; Linehan, 1993), 이러한 갈등으로 높아진 부정적 정서를 벗어나기 위해 회피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우울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10)를 근거로 한 것이다. 대안모형은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허연주, 이민규, 2015; 홍상황, 김영환, 1998)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결과(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를 고려하여 경계선 성격성향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이중매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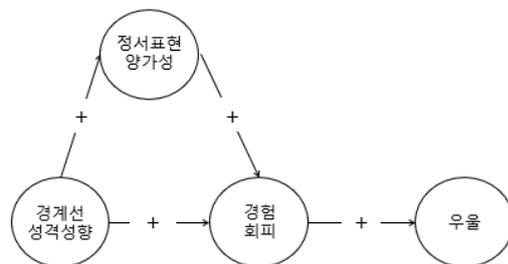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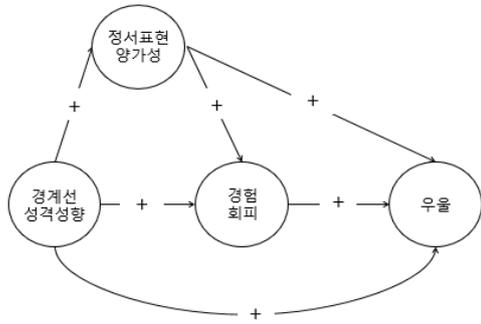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우울, 정서표현양가성 및 경험회피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성향자들이 지닌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우울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31부, 정신과 치료 경력(임상군)이 있는 5부를 제외한 56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M = 30.43$ 세,  $SD = 13.48$ ). 이는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받는 대상의 경우 약물로 인한 반응의 부적절성이나, 증상의 심각도 파악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213명(38%), 여자는 351명(6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30세 364명(65%), 31-40세 46명(8%), 41세-50세 79명(14%), 51-60세 72명(13%), 61-70세 3명(1%)으로 구성

되었다. 이들의 지역별 비율은 서울 및 경기 138명(24%), 대구 및 경산 247명(44%), 기타 경북지역 112명(20%), 부산 67명(12%)이었다.

### 측정도구

#### 경계선 성격성향

경계선 성격성향은 Morey(1991)가 개발한 객관적 자기보고형 설문지인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홍상황과 김영환(1998)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척도의 임상척도 중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Borderline Feature Scale; PAI-BO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불안정성 6문항, 정체성문제 6문항, 부정적관계 5문항, 자기손상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4점 척도로 평정(0: 전혀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성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홍상황과 김영환(1998)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이며,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6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제시된 순서에 따라 .66, .65, .62, .67로 나타났다.

#### 우울

우울은 미국정신보건연구원(NIMH)에서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및 양병창(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우울감정 7문항, 긍정적 감정 4문항(역채점), 신체 및 행동 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0: 전혀 없었다, 3: 5-7번 있었다)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7,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제시된 순서에 따라 .86, .68, .75, .66으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은 King과 Emmons(1990)이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이며 자기-방어적요인 14문항, 관계-관여적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3, 각 하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는 제시된 순서에 따라 .92, .88로 나타났다.

### 경험회피

경험회피는 Hayes 등(2004)이 개발하고 허재홍, 최명식 및 진현정(2009)이 번역 및 타당화한 수용-행동 질문지-II(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유연성(psychological flexibility)과 경험회피(experiential avoidance)를 모두 측정한다. AAQ는 심리적 수용의 측정치로 사용되며, 1번, 6번, 10문항은 역채점하며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경험회피의

지표(R-AAQ)로 사용된다. 각 문항은 Likert 식 7점 척도로 평정(1: 전혀 그렇지 않다, 7: 항상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회피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경험회피의 합산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유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재홍 등(2009)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 통계적 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검증 및 매개효과의 검증은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RMSEA, TLI, CFI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이면 적당한 적합도, .1 이상이면 좋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아울러, TLI, CFI는 일반적으로 .90보다 높으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아울러, 연구모형들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왜도와 첨도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경계선 성격성향은 우울과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17, p < .01$ ), 정서표현양가성( $r = .14, p < .01$ ), 경험회피( $r = .25, p < .01$ )와도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우울은 정서표현양가성( $r = .35, p < .01$ )과 경험회피( $r = .55, p < .01$ )와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표현양가성 또한 경험회피( $r = .46, p < .01$ )와 높은 정도의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소인 관계 관여적 양가감정은 경계선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측정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검증결과,  $\chi^2 = 195.005(df = 59, p < .001)$ ,  $CFI = .958$ ,  $TLI = .944$ ,  $RMSEA = .064$ 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산, 상관은 그림 3과 같다. 아울러, 각 잠재변인에

표 1.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4
경계선 성격성향	1													
1-1. 불안정성	.85**	1												
1-2. 정체성 문제	.84**	.60**	1											
1-3. 부정적 관계	.81**	.57**	.61**	1										
1-4. 자기 손상	.81**	.62**	.52**	.57**	1									
2. 우울	.17**	.12**	.16**	.14**	.16**	1								
2-1. 우울감정	.14**	.10*	.13**	.12**	.11**	.90**	1							
2-2. 긍정적 감정	.15**	.11*	.12**	.12**	.16**	.42**	.15**	1						
2-3. 신체 및 행동둔화	.12**	.09*	.11*	.08	.11*	.85**	.70**	.09*	1					
2-4. 대인관계	.11**	.08	.10*	.09*	.10*	.71**	.66**	.06	.59**	1				
3. 정서표현양가성	.14**	.08*	.16**	.12**	.08	.35**	.30**	.12**	.33**	.24**	1			
3-1. 자기-방어적	.17**	.12**	.20**	.14**	.11*	.40**	.34**	.19**	.37**	.26**	.94**	1		
3-2. 관계-관여적	.05	.00	.07	.06	.02	.17**	.16**	-.00	.18**	.14**	.84**	.61**	1	
4. 경험회피	.25**	.24**	.23**	.18**	.16**	.55**	.45**	.36**	.44**	.33**	.46**	.53**	.24**	1
M	53.35	14.36	15.84	11.85	11.29	41.42	12.64	11.13	14.28	3.36	74.32	40.70	33.61	25.57
SD	13.39	4.38	4.48	3.31	3.98	12.14	5.69	3.66	5.01	1.75	16.58	11.19	7.20	5.42
척도 총점	69	18	18	15	18	60	21	12	21	6	120	70	50	70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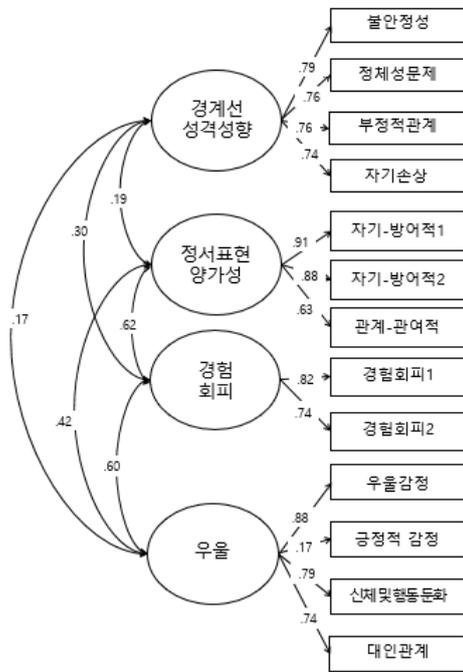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경계선 성격 성향 .74~.79, 정서표현양가성 .63~.91, 경험 회피 .74~.82, 우울 .17~.88이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 2).

아울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 개념 간의 분산을 활용해 설명력을 측정하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모든 구성 개념에 대한 개념 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 값을 확인한 결과, 경계선 성격 성향 .58, 정서표현양가성 .66, 경험회피 .62, 우울 .49의 AVE값을 보여 대부분 .5의 값을 상회하여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잠재변인의 CCR 값은 경계선 성격성향 .92, 정서표현양가성 .91, 경험회피 .90, 우울 .82로 모두 .7의 값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rn, 1998). 수렴

표 2.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유의성

요인		B	$\beta$	S.E.	C.R.
경계선 성격성향	자기손상	1.00	.74		
	불안정성	1.17	.79	.06	16.92***
	정체성문제	1.16	.76	.07	16.48***
	부정적 관계	1.03	.76	.06	16.45***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요인1	1.00	.91		
	자기-방어적 요인2	.88	.88	.03	24.16***
	관계-관여적 요인	.56	.63	.03	16.34***
경험회피	경험회피1	1.26	.82	.08	14.90***
	경험회피2	1.00	.74		
우울	우울감정	1.11	.88	.06	18.58***
	긍정적 감정	.24	.17	.06	3.75***
	신체 및 행동둔화	.88	.79	.05	17.70***
	대인관계	1.00	.74		

\*\*\*  $p < .001$ .

표 3. 수렴타당도 결과표

구분	AVE	CCR
경계선 성격성향	.58	.92
정서표현양가성	.66	.91
경험회피	.62	.90
우울	.49	.82

타당도의 결과표는 표 3과 같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값 검정과 비교적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를 잘 반영해주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의 지표를 중심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 = 196.547(df = 61, p < .001)$ , CFI = .958, TLI = .946, RMSEA = .063로 적합도는 양호했으며,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 역시  $\chi^2 = 195.005(df = 59, p < .001)$ , CFI = .958, TLI = .944, RMSEA = .064로 양호한 적

표 4.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chi^2$	$df(\chi^2/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196.547***	61(3.22)	.958	.946	.063
대안모형	195.005***	59(3.30)	.958	.944	.064

$\Delta\chi^2 = .462, \Delta df = 2, P\text{-value} = .46$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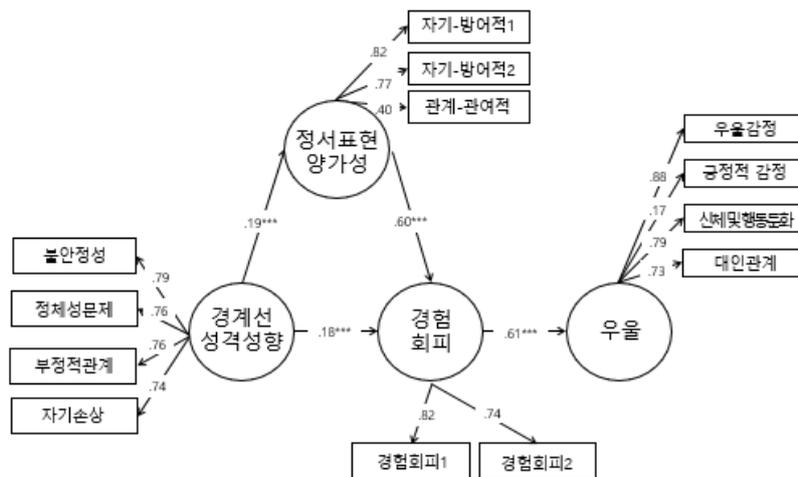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완전매개모형)경로계수

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타당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표 4).

연구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보면 경계선 성격성향이 정서표현양가성( $\beta = .19, p < .001$ )과 경험회피( $\beta = .18,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또, 정서표현양가성이 경험회피( $\beta = .60,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이어서 경험회피가 우울( $\beta = .61, p < .001$ )에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였다(그림 4). 대안모형은 경계선 성격성향이 정서표현양가성( $\beta = .19, p < .001$ )과 경험

회피( $\beta = .19,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또, 정서표현양가성이 경험회피( $\beta = .59, p < .001$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이어서 경험회피가 우울( $\beta = .56, p < .001$ )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였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beta = -.02, ns$ )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 $\beta = .07, ns$ )에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따라서 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적절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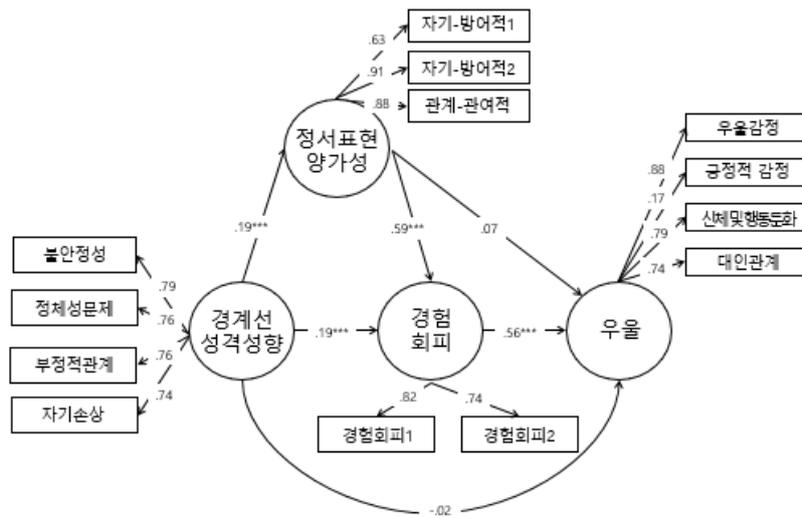


그림 5. 대안모형 (부분매개모형)경로계수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관련 변인	B	$\beta$	SE	C.R.
경계선 성격성향 → 정서표현 양가성	.18	.19	.04	3.84***
경계선 성격성향 → 경험회피	.20	.18	.04	4.09***
정서표현 양가성 → 경험회피	.70	.60	.06	10.75***
경험회피 → 우울	.66	.61	.05	11.28***

\*\*\*  $p < .001$ .

고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의 차이검증에서도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Delta\chi^2 = 1.542, \Delta df = 2, P > .05$ ), 대안모형에서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beta = -.02, m$ )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 $\beta = .07, m$ )로 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은 표 5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

채택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N = 564$ )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모수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매개효과 크기( $\beta = .18, p < .001$ )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서표현양가성

과 경험회피가 순차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경험회피를 매개하여 우울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beta = .18, p < .001$ )가 유의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성향이 경험회피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beta = .11, p < .001$ )가 유의하였고,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beta = .37, p < .001$ )가 유의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경계선 성격성향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심화시키며 동시에 경험회피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우울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서표현양가성 역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경험회피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 효과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경계선 성격성향	→	정서표현 양가성	→	경험회피	.18*** [.068~.162]	.30***	
경계선 성격성향	→	경험회피	→	우울	.18*** [.128~.237]	.18***	
정서표현 양가성	→	경험회피	→	우울	.37*** [.313~.421]	.37***	
경계선 성격성향	→	정서표현 양가성	→	경험회피	→	우울	.072*** [.042~.117]

\*\*\*  $p < .001$ .

##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에 관한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변인들 간의 상관을 기존의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김은정, 김진숙, 2010;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경계선 성격성향과 정서표현양가성, 경험회피, 우울과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거나(임혜진 등, 1997; 장미, 이영호, 2008; Gunderson, 1996; Russ et al., 1993), 경계선 성격성향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경계선 성격성향이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한 연구가 다수였으나(민지영, 최종욱, 방희정, 2014; 정수진,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이종환, 2019),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성향집단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계선 성격성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과 경험회피, 정서표현양가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은 경계선 성격장애환자들이 나타내는 우울문제가 정서표현양가성 및 경험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성격장애가 정상적 성격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견해(권지은 등, 2012; 양은주, 류인균, 2000; 허연주, 이민규, 2015)와 더불어 단지 경계선적 성격특성을 가진 대학생 집단에서도 문제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홍상환과 김영환(199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계선 성격성향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경험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경험회피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을 높이는 이론적 모형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매개하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이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선, 최현정, 2020; 허연주, 이민규, 2015; 홍상환, 김영환, 1998)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대안모형 검증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우울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경계선 성격성향자들이 정서표현양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표현의 욕구가 있으나 정서표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유기불안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전략과 관련되는 다른 손상적 또는 자기파괴적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우울이 증폭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러 선행연구를 보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는 정서자극에 민감한데 반해 이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조절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정서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지영, 2012; 권지은 등, 2012; 홍수연, 이승연, 2013; Linchan, 1993). 더욱이, 이러한 취약성을

지닌 이들은 어린 시절 비수인적이거나 학대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Kernberg, 1985),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Kim & Cicchetti, 2006), 정서표현에 방어적이고 갈등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6; Goldsmith & Freyd, 2005).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서 경험이나 이를 유발하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식의 경험회피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건강한 변화의 시도를 방해하여 결국 우울을 심화시킨다(이혜민, 허재홍, 오충광, 박원주, 2018; Hayes, 2004)는 사실을 지지한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이들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압,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전선영, 김은정, 2013; Emmons & Colby, 1995), 갈등을 회피나 차단, 억압 등 미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엄정은, 2010; 하정, 1997; Calvete, Estévez, & Corral, 2007 재인용)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란, 자기 및 대상표상과의 인지적 통합 실패, 그에 따른 유기불안으로 1차적으로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처리한다(Chapman, Dixon-Gordon, & Walters, 2011; Goldsmith & Freyd, 2005). 그러나 누적된 부정적 감정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증가시키고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실제로 우울이 더 증폭되거나 감정폭발로 이어진다고 하겠다(Linehan, 1993; Strosahl et al., 1992). 따라서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안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지 않도록 수용하거나 적극적인 해결방략을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로의 이환을 예방하고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방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만 18세부터 만 7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일반인 564명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에 일반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계선적 성격 특성을 가진 대학생 집단도 문제 수준의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홍상환, 김영환, 1998), 두 증상이 동반되는데 따른 자해나 자살시도 등 부정적 결과도 연령층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김현순, 김병석, 2007; 여환홍, 백용매, 2010; 이경진, 조성호, 2004)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도 연령층과 직업군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에 이르는 과정이 어떤 기제를 통해 발생하고 유지되는지를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성향이 우울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우울이 발생되고 유지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한데 의의가 있다.

셋째,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를 매개하는 완전매개모형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타당한 이론모형으로 검증된 점은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서 경험회피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경험회피는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수용하

지 못한 채, 통제하거나 회피할 경우 역설적으로 고통이 증가하게 되며(Hayes, 2004), 이면의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사고나 정서로 인해 쉽게 우울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김은정, 김진숙, 2010)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적 경험을 자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나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행동 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와 같이 수용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를 경계선 성격장애에 적용하는 것이 치료 장면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직면하기 어려운 내적 경험들에 직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장현갑, 김정모, 배재홍, 2007; Hayes et al., 1996). 자신의 내적 경험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고 수용하는 치료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고 내적인 갈등을 감소시킨다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고, 우울과 무망감, 절망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봉건, 2008; Kashdan & Rottenberg, 2010).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완전매개하는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반 경계선 성격성향자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본 모형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의 경우 관계관여적 양

가감정은 경계선 성격성향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관계관여적 갈등이 높을지라도 본래의 성격적 취약성과는 관련성이 낮거나(심서영, 하유진, 2012), 자기방어적 갈등이 높은 이들에 비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이혜민 등, 2018; 황희숙, 이영식, 2016). 따라서 정서표현양가성에서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차별화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최해연, 민경환, 2007; Markus & Kitayama, 1991).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서표현 억제가 타인을 위한 배려나 이해로 여겨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조공호, 1997; Gudykunst et al., 1992; Markus & Kitayama, 1991;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특히 자기방어적 갈등은 경계선 성격성향, 우울, 경험회피의 모든 하위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관여적 측면보다 자기방어적 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대부분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나, 우울의 경우 우울감정,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는 높은데 반해 긍정적 감정은 .17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긍정적 감정의 경우 우울의 유일한 역문항 변인이며,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 반응경향(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순응적 반응경향(Ray, 1983)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를 통해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성향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통해 임상집단인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경계선 성격성향자가 경계선 성격장애로 이환하는 과정에는 여러 매개변인들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의 성향자를 대상으로 장기적, 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성향과 우울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관련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515-539
-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75-87.
- 김민선, 최현정 (2020). 경계선 성격의 핵심증상 및 우울 증상과의 동반이환: 네트워크 분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257-273.
- 김우석 (2004). 정서표현성, 자아방어기제 및 대처방식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 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현순, 김병석 (2007). 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801-818.
- 민지영 (2012). 거부민감성 및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지영, 최종옥, 방희정 (2014). 부정적 정서강도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관계에서 주의력 조절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317-337.
-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정서각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71-581.
- 박진미 (2006).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정서적 회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진미, 서수균, 이훈진 (2007). 경계선성격장애 성향자의 부적응적 정서 조절.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717-730.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심서영, 하유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 성격변인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73-1092.

- 양은주, 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정신병리학*, 9(1), 3-15.
- 엄정은 (201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4), 1047-1066.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봉건 (2008). 한국판 마음챙김명상(K-MBSR)이 대학생의 우울증상, 마음챙김수준, 몰입수준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333-345.
- 이영식 (2015).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조절변수로 하여. *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지연, 황현숙, 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2), 495-515.
- 이채리 (2012). 정서강도와 정서조절곤란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민, 허재홍, 오충광, 박원주 (2018). 정서표현양가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9(1), 65-86.
- 임혜진,곽소영, 신동균 (1997). Rorschach 검사에 나타난 경계선 성격 장애 집단의 방어 기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1), 743-753.
- 장미, 이영호 (2008). 로샤 검사에 나타난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사고장애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72-573.
- 장현갑, 김정모, 배재홍 (2007). 한국형 마음챙김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SCL-90-R로 본 효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833-85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선영, 김은정 (2013). 대학생의 반추 하위유형들(몰두와 반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 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285-306.
- 정수진,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이종환 (2019). 사회적 배척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도구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809-828.
- 조궁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한국인의 정서이해를 위한 시론).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추상엽, 임성문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문제중심 대처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7(2), 309-332.

-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연주, 이민규 (2015). 경계선성격장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3), 747-767.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321-49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수연, 이승연 (2013).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와 성인기 경계선성격장애 성향의 관계: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4(5), 3003-3021.
- 황희숙, 이영식 (2016). 정서표현양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335-34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cation.
- Bell, P. A., & Byrne, D. (1978). Repression-sensitization. *Dimensions of personality*, 15(2), 449-485.
- Bjornsson, A., Carey, G., Hauser, M., Karris, A., Kaufmann, V., Sheets, E., & Craighead, W. E. (2010). The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rumination o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4), 389-40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Buck, R. (1988). *Human motivation and emotion*. John Wiley & Sons.
- Calvete, E., Estévez, A., & Corral, S. (2007). Trastorno por estrés posttraumático y su relación con esquemas cognitivos disfuncionales en mujeres maltratadas. *Psicobema*, 446-451.
- Chapman, A. L., Dixon-Gordon, K. L., & Walters, K. N. (2011). Experiential avoidance and emotion 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9(1), 35-52.
- Conway, C., Hammen, C., & Brennan, P. (2012). A comparison of latent class, latent trait, and factor mixture models of DSM-IV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in a community setting: Implications for DSM-5.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6(5), 793-803.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
- Emmons, R. A., & Kaiser, H. A. (1996).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L. L. Martin & A. Tesser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pp. 79-9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Associates, Inc.
- Fairbairn, W. R. D. (1949).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n object relations theory of the 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2(12), 26-31.
- Friedman, H. S., & Booth-Kewley, S. (1987). The "disease-prone personality": A meta-analytic view of the construct. *American Psychologist*, 42(6), 539.
- Goldsmith, R. E., & Freyd, J. J. (2005). Effects of emotional abuse in family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oldstein, H. S., Edelberg, R., Meier, C. F., & Davis, L. (1988). Relationship of rest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o experienced anger and expressed anger. *Psychosomatic Medicine*.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0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4), 850.
- Gudykunst, W. B., Gao, G. E., Schmidt, K. L., Nishida, T., Bond, M. H., Leung, K., & Barraclough, R. A. (1992).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collectivism, self-monitoring, and predicted-outcome value on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2), 196-213.
- Gunderson, J. G. (1996). The borderline patient's intolerance of aloneness: Insecure attachments and therapist avail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6), 752-758.
- Gunderson, J. G., & Phillips, K. A. (1991). A current view of the interface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8), 967.
- Gunderson, J. G., Skodol, A. E., Pfohl, B., Widiger, T. A., Livesley, W. J., & Siever, L. J. (2002). The borderline diagnosis I: psychopathology, comorbidity, and personality structure. *Biological Psychiatry*, 51(12), 936-950.
- Gunderson, J. G., Stout, R. L., Sanislow, C. A., Shea, M. T., McGlashan, T. H., Zanarini, M. C., ... & Skodol, A. E. (2008). New episodes and new onsets of major depression in borderline and other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1(1), 40-4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J: Prentice Hall, 5(3), 207-219.
- Hayes, S. C. (2004).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relational frame theory, and the third wav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Behavior therapy*, 35(4), 639-665.
- Hayes, S. C., Strosahl, K., Wilson, K. G., Bissett, R. T., Pistorello, J., Toarmino, D., & Stewart, S. H. (2004). Measuring experiential avoidance: A preliminary test of a working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4(4), 553-578.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64(6), 1152-1168.
- Henry, C., Mitropoulou, V., New, A. S., Koenigsberg, H. W., Silverman, J., & Siever, L. J. (2001).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and

- bipolar II disord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5(6), 307-312.
- Herman, J. L., & Harvey, M. R. (1997). Adult memories of childhood trauma: A naturalistic clinical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4), 557-57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shdan, T. B., & Rottenberg, J. (2010). Psychological flexibility as a fundamental aspect of health.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65-878.
-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9), 1301-1320.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
- Kennedy-Moore, E., & Watson, J. C. (2001). How and when does emotional expression help?.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3), 187-212.
- Kernberg, O. F. (198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 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
- Kruegelbach, N., Mc Cormick, R. A., Schulz, S. C., & Grueneich, R. (1993). Impulsivity, coping styles, and triggers for craving in substance abuser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7(3), 214-222.
- Ray, J. J. (1983). Reviving the problems of acquiescent response bia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1(1): 81-95.
- Levenson, R. W., Carstensen, L. L., & Gottman, J. M. (1994).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1), 56.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Guilford Press.
- Linehan, M. M. (2007). 경계선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다이어렉티컬 행동치료 {*Skills training manual for treating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조용범 역). 서울: 학지사.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Mc Manus, M., Lerner, H., Robbins, D., & Barbour, C. (1984). Assessment of borderline symptomatology in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Psychiatry*,

- 23(6), 685-694.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rofessional Manual*. Florida, U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quendo, M. A., Malone, K. M., & Mann, J. J. (1997). Suicide: risk factors and prevention in refractory major dep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5(4), 202-211.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u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26(2), 82.
- Richetin, J., Preti, E., Costantini, G., & De Panfilis, C. (2017). The centrality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dent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vidence from network analysis. *PLoS one*, 12(10), e0186695.
- Russ, M. J., Shearin, E. N., Clarkin, J. F., Harrison, K., & Hull, J. W. (1993). Subtypes of self-injurious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1969-1871.
- Soloff, P. H., Lynch, K. G., & Kelly, T. M. (2002). Childhood abuse as a risk factor for suicidal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6(3), 201-214.
- Staebler, K., Gebhard, R., Barnett, W., & Renneberg, B. (2009). Emotional respons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depression: Assessment during an acute crisis and 8 months lat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1), 85-97.
- Strosahl, K., Chiles, J. A., & Linehan, M. (1992). Prediction of suicide intent in hospitalized parasuicides: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psychiatry*, 33(6), 366-373.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
- Underwood, B., Froming, W. J., & Moore, B. S. (1980). Mood and personality: A search for the causal relationship 1. *Journal of Personality*, 48(1), 15-23.
- Wenzlaff, R. M., & Bates, D. E. (1998). Unmasking a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How lapses in mental control reveal depressive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5(6), 1559-1571.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clinical descriptions and diagnostic guidelin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Zanarini, M. C., Frankenburg, F. R., Dubo, E. D., Sickel, A. E., Trikha, A., Levin, A., & Reynolds, V. (1998). Axis I comorbidit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12), 1733-1739.
- Zimmerman, M., & Mattia, J. I. (1999). Axis I diagnostic comorbid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0(4), 245-252.

원고접수일 : 2020. 11.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3. 03.

게재결정일 : 2021. 03. 09.

##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A-Young Kim**

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Seodaegudaedong's Hospital

**Yong-Mae Baek<sup>†</sup>**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A total of 564 adul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o measure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PAI-BOR), depression (CES-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EQ-K), and experiential avoidance (AAQ-II), wer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experiential avoidance.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was mediated by experiential avoidance, not b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depress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xperiential avoidance*

---

\* This work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 Correspondence to Yong-Mae Baek,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13-13 Hayang-ro,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 E-mail: ymbaik@cu.ac.kr